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

(신명기 19:14~21)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무위(無爲)의 위, 함이 없는 행함'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복지의 외적인 증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복지의 내적인 증거는 의도성 제로의 땅으로 인위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성'의 반대되는 말이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스러운 옷차림, 자연스러운 화장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화장'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짙은 인위성과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행위인데, 그 결과는 인위성이 안 보이고 의도성이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성형수술'이라면 이보다 더 의도적일 수 없고 인위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움의 가장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그 결과는 자연스럽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의도적이고 인위적이며 작위적인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형수술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되느냐에 달려있는데, 재미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화장법, 자연스러운 성형수술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이 자연스러운 생활법은 없을까요? 내 의도와 인위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내 의도나 인위적 작위적 행위가 없는 삶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게 바로 복지의 삶인데 복지의 삶에서는 내 의도성을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위의 위'의 삶이 복지의 삶인데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행하는데 거기엔 인위성과 의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벌목하다가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 옆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는 '의도성 없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재판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위증에 대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위증을 하게 되는 이유와 마음의 동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경계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老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노장사상(老莊思想)의 요체입니다. 노자는 난세를 맞이해서 난세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의 갈등과 불행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간의 의도성과 인위성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난세의 해법으로 무위자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은 막히면 비켜가고 완전히 막으면 멈춰 서서 만물을 살려내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만물을 살린다.'는 말 한 마디가 없습니다. 물이 아무런 의도나 인위적인 계획 없이 만물을 살려내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사람의 행동의 원리로 자연을 따를 것을 요청하면서 "사람은 땅을 본보기로 하여 따르고, 땅은 하늘을 본보기로 따르고, 하늘은 돌을 본보기로 따르고, 돌은 자연을 본보기로 따른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땅과 하늘과 돌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원리를 품고 있는 자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무위자연입니다.
그런데 '무위자연'이라는 말에서 '무위'라는 말은 인위, 작위의 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귀한 통찰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자연을 따라서 무위의 삶을 산다는 행함이 없는 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연은 전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운행은 비인격적인 도의 자기표현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삼라만상 자연은 당연히 인위적인 것은 아니

지만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행하신 것을 보면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제철이 아니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십니다. 자연을 거스르시는 것입니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자연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자연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행위는 무위자연이 아니라 무위신의(無爲神意)로 자연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십니다.
'무위'라는 말 자체는 뛰어난 통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함이 없이(의도 없이) 행할 수가 있느냐는 것인데, 노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연에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주시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미몽(迷夢)입니다. 자연을 따라서 사람이 무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위신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수면을 치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자연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물의 흐르는 모습을 최고의 선으로 '상선(上善)'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모세는 물을 갈라 세우시고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을 주시고 엘리야가 가뭄 끝에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비가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는 태양이 멈추게 됩니다. 노자의 무위자연을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는 무위의 삶, 인위성과 의도성이 배제 된 것을 생각할 때는 으레 자연을 생각하지만, 선민이 무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절대 자연적인 삶,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복지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는데, 전혀 사람의 의도성과 인위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땅을 내가 차지하는데 내 의도는 들어있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 나누고 보면 남의 땅이 더 좋아보여서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나와서 한 10미터만 경계표를 옮기면 물줄기나 샘의 근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강한 유혹이 있으므로, 나의 인위성으로 내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확대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경계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위증'이란 그 당시에 CCTV도 없고 증거확보가 용이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때에 주로 증언의 형태로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재판에서 증인은 당사자입니다. 자기가 재판을 청구하고 자기가 증인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가장 큰 유혹은 내 말 한 마디에 따라서 내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게도 되고 불리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싶은 욕망이 강해집니다. 말

한 마디로 재판의 결과가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 있는데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선민이 이 지상의 가정의 삶에 대해서, 직장의 삶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의도를 갖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형식이 있습니다. 의도가 표출될 때 나의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 위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위성'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인위성 없이 살 수 있겠으며, 노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의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표를 옮긴다거나 상황을 내게 유리하도록 위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민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는, 절대로 이러한 인위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의도 없이 행함을 통해 삶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주 낯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생각해보면 우리의 출생에 내 의도와 인위성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집과 부모님에게 내 의도성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나 나의 생김새도 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제비뽑기로 할당 받는 것처럼 나의 생김새도 내 입장에서 보면 제비뽑기입니다. 누구는 김태희 씨의 얼굴로, 장동건 씨의 얼굴로 태어나고 누구는 못난 얼굴로 태어나는데 이게 제비뽑기이고, 땅을 분배받을 때처럼 경계표이므로 이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죽게 될 날이 다 내 일이지만 나의 의도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땅을 분배받을 때처럼 경계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출생도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대로 자연을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밤의 달과 별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도 아브라함의 의도는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사십년의 광야생활 하루하루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도로만 이루어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든 삶의 원칙과 규례와 율법도 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민의 의도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간은 내 의도 없이 출생하여 내 의도 없이 죽습니다. 내 의도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생물들과 다른 점은 그것들은 본의 아니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로 꽉 차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내 의도 없이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내 의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내 의도 없이 시작해서 내 의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그 중간을 나의 의도로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다시 선택하신 선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의도와 내 인위적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된 이 세상에서, 선민들은 '무위의 위, 함 없는 행함'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냐는 것인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한 무위의 위가 가능합니다. 땅에서 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전부 내 의도가 없는 것들이라야 합니다. 나의 것을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와 나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가 없다면 의도는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면서도 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에 의한 필연들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생활화로 마음이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찾아서 만족하려하고 기뻐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살아있는데 의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간에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듯이 교제하기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떠나서 승천까지 주님이 만드신 영역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하시는 교제에 참여하는 것에 모든 뜻과 의지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요17:1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기쁨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임에도 내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 자신에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확증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셨습니다.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주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지만, 세상은 주님께 책임을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위의 위, 행함이 없는 함, 함이 없는 행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내가 확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한척 한다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고 위증을 하는 것으로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이 세상을 향하여 소원과 계획과 바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싶은 것이 없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의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는 무색해 질 정도로,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로 누리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면, 노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무위의 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노장사상이 굉장히 깊은 철학인데 그것을 몰라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무위의 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고 부조화가 없는 삶이 되고 평화만이 깃드는 삶, 어느 상황이 주어져도 내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의 삶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내 의도가 나타날 때에 살인과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인'은 우리가 보기에 초라하든 멋있든 박사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경외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경외'는 그 자체로 생명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가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생명경외 때문이 아니라, 그 생명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경외와 절대로 공통점이 없습니다. 생명경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오직 하나님의 의도가 보존되어 그 의도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먹거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에서도 생명경외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감정이입을 해서 소가 도살장에 들어갈 때 그 큰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하거나 동물사랑, 반려동물로 칭하는 것이 우상화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굶어죽는 사람이 북한에 부지기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강아지 털을 깎는데 몇 십만 원을 들이고 수술하는데 200~3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우상이에요. 알기나 하고 하세요. 결국 내 의도나 인위성을 가지고 살 때에 살인과 똑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두 번째 병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인위적'이라는 것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마음대로 넓히려고 하는데, 의도성을 갖는 순간 믿음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이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어디에 나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의도가 발동되는 순간 곧바로 믿음은 정지되게

됩니다.
요3:27절에서 세례 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계표를 옮기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위증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의도와 인위성이 한 조각이라도 내 삶에 나타날 때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에 우리의 의도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승천에 이르는 곳에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에 우리의 의도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해진 기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은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만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 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안은 채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순교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이 선민의 삶입니다.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이 복지의 내적 규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노장사상이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말았던 무위의 삶을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행함’이라는 복지의 내적 규정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